

“ 치열한 기술력 경쟁을 통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한 제품 개발, 접지업계 1위로 도약 ”

■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주)티지오는 1990년대 초 낙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특수 방전봉을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 하더라도 접지·피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터라, 접지·피뢰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기도 힘들었다. 허나 (주)티지오에서는 국내 최초로 접지체의 효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접지체의 방전능력을 극대화 시킨 침상전극봉을 국내최초로 개발하였다. 이제품은 항우 신기술인증(NT)를 취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뢰시스템에 응용하여, 광역피뢰침을 이용하여 “조기흡입(광역피뢰침)”, “밀봉인하(특수인하도선)”, “조기방전(침상전극봉)”의 특수기능을 갖는 시스템을 구축 특허획득을 하였다.

(주)티지오는 업계선두자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항상 경쟁업체보다 뒤든지 일찍 시작한다. 접지체의 방전개념도 국내최초로 도입하였고, 탄소계 접지저감재의 국내적용로 국내최초로 적용하였으며, SPD(서지보호기)의 시험인증도 국내인증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인증마크인 CE 마크를 국내최초로 획득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을 배가 시켰다.

또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 접지공사같은 경우도 항상 (주)티지오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2004년 고속철도유도대책 접지공사를 11개 공구(약 500개소)를 수주하여 자사개발 접지저감재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준공하였고, 2005년 공군낙뢰경보장치 시스템설치 공사건을 수주하여 국내최초로 낙뢰경보장치를 전국 20곳에 설치하고 이를 군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전국의 낙뢰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2006년 현재 국토 ITS 기반인프라구축 공사에도 (주)티지오의 접지체가 대량 납품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기상청에 접지시스템 제안을 통하여 기상장비에 (주)티지오의 접지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동남아시아 쪽 여러나라에 수출진행 예정에 있다. 이렇듯 제품과 공사면에서 업계선두에 설수 있었던 것은 과감한 투자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주)티지오에서는 제품개발을 위하여 2002년 연구소를 설립, 20kV, 100kA의 뇌서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서지 시뮬레이터 장비를 갖추었고, 대지분석 시뮬레이터인 SES사의 CDEGS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2005년 캐나다로 직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기초전력 연구소와 협력업체 관계로 신제품의 연구를 추진 중이다.

2005년부터 국내접지·피뢰에 대한 시설환경이 KS기준을 국내표준인 IEC에 접합하게 변경됨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국제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기술은 사장(死藏)됨이 예상되고,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 그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기술개발과 동시에 국제무대로의 도약만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길이라는 것이 회사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2006년 (주)티지오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사업부를 파트별로 피뢰사업부, 접지사업부, 서지사업부로 사업부를 세분화 하였고, 연구소 기능을 강화시켜 최상의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사업부별 소개

1)서지사업부

최근 광역화 정보통신망의 구축으로 전자데이터를 매체로 하는 정보기술의 의존도가 점점하고 있으며, 전자데이터처리 시스템이나 계측제어시스템은 현대 사회의 모든 산업분야의 중추적 핵심요소가 되었다. 특히 산업과 경제분야에서는 컴퓨터를 기초로 하는 사회시스템으로 급속히 변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화 시스템의 일시적 기능



TGO생산 써지보호기

써지 킬러(R)

그린어스(R)

정지나 고장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고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므로 안전한 시스템의 유지, 운용을 위한 Surge사고의 저감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주)티지오는 낙뢰로부터 발생하는 Surge로부터 전기·전자·통신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해 창업 이래 수년간 다져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AC전원 보호용 SPD(Surge Protector Device) : Din-rail type과 Box type 및 데이터·통신라인 보호용 SPD등 약 50여종을 자체 개발하여 생산·판매하고 있다.

2)피뢰사업부

최근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피뢰설비로 신형 피뢰침 방식이 적극적으로 도입, 설치되고 있습니다. 즉, 종래부터 적용되고 있는 일률적 보호각 개념의 프랭클린 돌침 방식과는 다른 회전구체법이 적용되고 광역 보호범위의 고 신뢰도 방식의 신형 선형 스트리머 방식형(ESE) 피뢰침이 다수 적용, 설치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표준에서도 피뢰이론에 대해서 일률적 보호각 개념이 아닌 회전구체법을 적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규격에 의한 피뢰침 설치 시에는 보호각의 높이에 따르는 차등 적용으로 인하여, 피뢰침을 다수 설치해야 하며, 이에 따르는 건축물을 미관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표준에서는 돌침형 피뢰침의 적극적인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수평도체방식의 피뢰침 사용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티지오에서는 건물과 주변여건에 따라 보호등급을 선정하여 이에 적합한 피뢰시스템을 제안한다.

3)접지사업부

접지가 공학기술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통신 분야에서 대지귀로의 고려, 전력분야의 송·배전계통에서 접지방식, 이에 따르는 전기기기의 전위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가 실용화된 시대부터이다. 이후 접지기술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접지(어스)라고 하면 단순히 접지봉을 대지에 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 하는 기술자가 현재도 있다. 감전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안전용 접지라면 그렇게 해도 된다. 허나 오늘날과 같은 전자공학만능의 시대에는 접지에 대한 종래의 인식을 근본부터 다시 평가해야 한다. (주)티지오에서는 고속철도 유도대책 접지공사의 성공적인 공사 경험을 토대로 (주)티지오에서는 현장의 여건을 측정, 분석하여 현장여건에 가장 적합한 접지공사를 제안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 회사비전

혹자는 접지, 피뢰의 산업사업은 사기라고 이야기 한다. 그만큼 제품의 신뢰성을 증명하기도 힘들고, 이에 따라 마치 소설 같은 제품들이 시장에 난무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온갖 종류의 소설 같은 제품들이 확실한 검증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어 지고 있다. 허나 이러한 제품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것이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 사장될 것이다. 또한 이 분야의 기술표준경쟁에서도 우리나라는 국제표준인 IEC기준에 종속되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제품을 국제표준에 맞게 표준화시켜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좋던 나쁘던 이것이 우리 업계에 당연한 과제가 되게 되었다. 따라서 (주)티지오에서는 국제표준에 맞는 제품을 개발할 것이며, 제품의 다양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선택기준을 넓게 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치열한 기술연구 개발을 통하여 접지·피뢰·서지분야의 국제표준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제품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